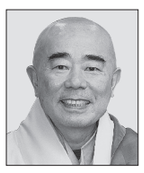
일 주 문



〈화엄경왕복서〉 특별강좌

무비 前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은 6월 24~26일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에서 〈화엄경왕복서〉 특별강좌를 진행한다.



제4교구 교사 연수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6월 22일 월정사 경내서 '조계종 제4교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연수' 를 실시한다.



수덕사 반결제 산행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7월 2일 가야사지에서 서산마애삼존불까지 걷는 '반결제 산행 및 공승법회' 를 봉행한다.



월초 스님 기신재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6월 2일 봉선사 청풍루서 '제85주기 월초 스님 기신재' 를 봉행했다.



출판기념 토크콘서트

법현 서울 열린선원장 스님은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법구경, 읽는 그대로의 깨달음 詩〉 출판기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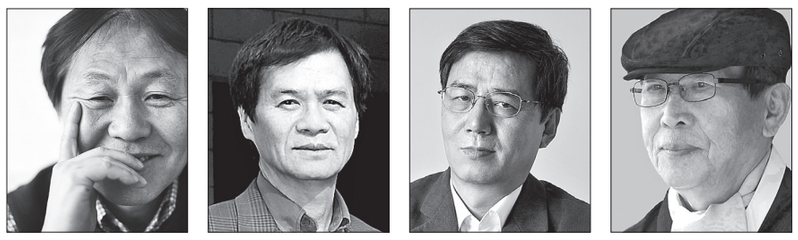
2019 교수불자대회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7월 4~6일 감포 무일선원 및 수련원서 '4차산업과 불교' 를 주제로 2019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유심작품상 이재무 · 김영재 · 이경철

만해사상실천선양회
6월 3일 수상자 발표
특별상 이상범 시조시인
8월 11일 시상식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17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들. 사진 왼쪽부터 이재무 시인(시 부문), 김영재 시인(시조 부문), 이경철 평론가(평론 부문), 이상범 원로 시조시인(특별상).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 사상을 선양하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한 문학인들을 선정 · 시상하는 유심작품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제17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로 시 부문에 이재무 시인의 '목련' 을, 시조부문에 김영재 시인의 '바늘귀' 를, 평론 부문에 이경철 평론가의 〈현대시에 나타난 불교〉를, 특별상에 이상범 원로 시조시인을 각각 선정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재무 시인의 수상작 '목련' 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이재무 시인은 사물이 들려주는 언어를 잘 들을 줄 아는 시인으로 시류적 시인과 달리 그 사물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한다"면서 "대부분의 시인들이 인간의 소리에만 집착하는 요즘 모처럼 사물의 언어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 시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상찬했다.

김영재 시인의 '바늘귀' 에 대해서는 "초장에 열고 중장에 펼치며 종장에 닫는 기본 보법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시인 특유의 작법 태도인 상의 비약까지 잘 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경철 평론가의 평론집에 대해서는 "지난 110년의 한국현대시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체계를 세우려 했고 이는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상소감에 대해 이재무 시인은 "요새 부처의 향기가 난다는 불암산을 하루 1, 2번 오르내리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 아주 산을 내려가 세상 어디를 주유하든 나는 이미 내 몸 안쪽에 자리한 불암산을 오르내리며 산이 주는 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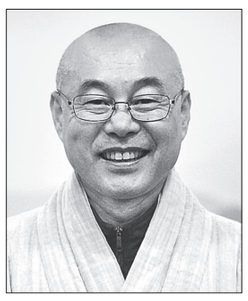
김영재 시인은 오현 스님의 그리며 수상 소감을 마무리했다. "마냥 기쁘지 많은 않다"고 운을 띄운 그는 "나의 시조를 과분하게 칭찬해주시던 그분, 오현 스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 그분께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 없다. 슬프다. 이 상을 오현 스님 앞에 두 손 받들어 올린다"고 말했다.

이경철 평론가는 "월명사의 '도 닦아 기다리겠다' 는 불심(佛心)과 미당의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는 시심(詩心)에 무슨 차별과 등급이 있겠는가"라며 "불교의 원만하고 한량없는 인본주의 세계가 시세계의 궁극과 같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17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1일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열리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행하는 불도 부산 이룰 터"

조계종부산연합회
제4대 회장 원허 스님



7월 6일 부산항 컨벤션서
이 · 취임식과 수계법회도
"지계(持戒) 중요성 알린다"

"10년 동안 역대 회장님과 집행부가 이어 온 노력을 잘 이어받아 지계와 수행으로 불도 부산이 더욱 신심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제4대 회장에 원허 스님(혜원정사 주지)이 새롭게 취임했다. 원허 스님〈사진〉은 앞으로 부산이 수행으로 탁마하며 계율로 청정한 불도(佛都)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부산불교는 한국불교의 중심입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부산불교는 곧 핵심이자 성공의 열쇠를 가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그동안 계율을 강조하는 삼귀의 · 오계수계법회와 재가 안거를 통해 불교 기본 정신을 강조하고, 승보공양법회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행문화를 선도했습니다. 각 행사가 가진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원허 스님은 덧붙여 계와 보시바라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재가 안거기간 실천 덕목으로 추가해 구체적인 생활 지침으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희 혜원정사에서는 재가자들을 위한 수행록을 제작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팔계' 를 수지하도록 합니다. 팔계 가운데 오후불식을 지켜 남은 공양비를 굶주린 사람을 위해 회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계를 지키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돕는 겁니다. 아울러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 시간을 가져 불자다운 삶으로 성장하길 발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허 스님은 "그동안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열심히 활동하는 도반들의 모습보고 감동받았다"며 "회장직을 수락한 동기가 바로 도반이다. 승가, 재가 그리고 모든 포교 활동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이 · 취임식은 오는 7월 6일 오후 3시 부산항 컨벤션센터 5층에서 열리는 '삼귀의 · 오계수계법회' 와 함께 진행된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6월 4일 안국선원 4층 법당에서 '기해년 재가 하안거 수행 입재법회' 를 봉행했다. 재가 하안거 수행에는 혜원정사, 홍법사, 안국선원 등 부산에 위치한 조계종 14개 사찰 신도와 포교사단부산지역단 등 신도 1200여 명이 동참했다. 수행은 무비 스님의 〈금강반야바라밀경〉 사경집을 중심으로 사경하고 1일 1선행, 수행서원문 염송 등으로 진행된다. 회향은 8월 1일이며 동참 재가자들은 안거증을 받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년불자 도홍 김상지 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수상
6월 1일, 서예 부분 역대 최연소



제38회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청년불자 서예가 도홍 김상지 작가(30 · 사진)가 대상을 수상했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 서예부분 최연소 작가이자 부산에서의 대상 수상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한국미술협회는 "제3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결과 김상지 작가의 작품 행초서로 쓴 '맹호연 시-봉림사 서쪽 봉우리에서 노닐고' 가 대상에 선정됐다"고 6월 1일 밝혔다.

김상지 작가는 "스승인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부모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작품 전시는 7월 3일부터 13일까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에서 진행된다. 김상지 작가는 20여 년간 서예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전국서도민전 대상, 청남휘호대회 대상, 대한서화예술대전 대상 등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르신 건강한 노후 기원"
진안 쌍봉사, 마령면 어르신 섬김봉사활동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는 6월 5일 마령면사무소 강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위안 섬김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쌍봉사는 250여 명의 어르신에게 문화공연과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를 기원했다. 주지 보경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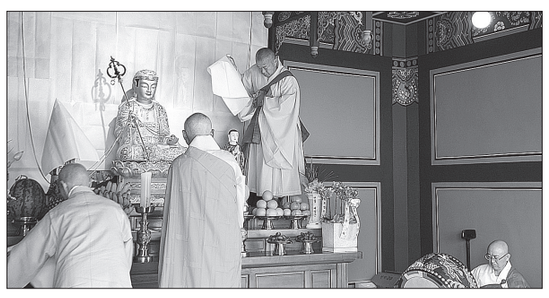
생명나눔 6월 치료비 지원
김선우 군에게… "도움 주셔서 감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4일 법인 사무실에서 환자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6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는 발달지연 아동인 김선우(가명, 3) 군으로, 김 군은 근육 발달과 언어가 7개월 아이 수준으로 전반적인 발달이 지연된 상태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 군의 보호자는 "힘든 생활이지만 도움을 주셔서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국내 최초 축생법당 개원
영천 천룡정사, 반려동물 축생전도법회



영천 천룡정사(주지 지덕)는 5월 26일 축생법당 낙성식과 지장보살 · 신중후불탱화 점안법회 · 반려동물 축생천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증명법사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과 삼보실천승가회 회원 스님, 천료정사 주지 지덕 스님, 강신덕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소원성취 원만발원과 극락정토회향 축원의식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